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음 2월 27일) 제202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전북 남원 설립 확정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확정

전북 남원에 국내 최초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관련기사 11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립은 그동안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 정치권(이용호 국회의원 등) 등에서 서남대 폐교(2018.2)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이날 남원 설립 확정 발표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향후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상 권역의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공의료 발전(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산실)과 지역균형발전 촉매제로도 기대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최종적으로 남원 설립 확정을 이끌어냈다고

보건복지부 발표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 전북도-남원시-정치권 등 정부에 지속 건의로 '결실'

올 하반기 관련 법률 마련 내년부터 설립 계획수립 거쳐 빠르면 2022년 개교 목표 의료서비스 발전 큰 도움 기대

밝혔다.

송 지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서남대 폐교로 상실감이

깊은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마련 등 후속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대학인 서남대 폐교로 지역교육의 기회박탈과 경제침체가 이어져 허탈과 상실감이 컸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공공의료발전

에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올 하반기 관련 법률 마련이 추진되고 2019년~2022년간 대학 설립 계획수립 및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빠르면 2022년(2023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우수한 교육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최고 수준의 임상교육시설 인프라 투자도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운영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교육으로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할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안정적 인 의료인력 양성과 확보로 의료서비스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그동안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으로 의대 정원 증원 시 예상되는 사회적 논란 최소화과 지역균형 발전 유지, 기존의 교육시설(서남대)과 의료시설(전북도 남원의료원)의 인력·장비 활용으로 신설에 필요한 비용 최소화 등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김진성 기자

도내 4대 현안 '순풍'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것을 비롯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탄력이 붙는 등 전북도에 남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여과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상 첫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전북 남원에 국내 최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확정 발표되면서 전북 경제상황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 새만금개발공사 올 하반기 출범 순조
-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군산시 지정
-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

향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새만금 지역에서 출범할 계획이며, 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연내에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결과 국내선·국제선을 종합해 2025년 기준 67만 명, 2055년 기준 133만 명의 수요가 예측되며, 장애물·공역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타 입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됨에 따라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가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등을 실시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도민들과 함께 행정과 정치권이 한마음이 되어 가능했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체질개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靑 "올해 어버이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한다"

청와대는 11일 올해 5월8일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는 지속하겠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해 19대 대선 후보시절 노인복지 공약으로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내건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받아들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진성 기자

/뉴스

매일 INDEX

2면 - "토지공개념, '법률로써' 추가"

3면 -靑, 남북정상회담 비상체제 전환

5면 -靑, 중3 대입 적성고사 폐지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